

배포일시	2019. 8. 5.(월) 13: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예 보 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유 근 기 마 승 완	전화번호 062-720-0353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현황과 전망

- 6일(화)~7일(수) 광주·전남 태풍 영향
 - ※ 예상강수량: 광주·전남(서해안 제외) 10~60mm, 전남서해안 5~20mm
- 제9호 태풍 '레기마' 9일(금)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으로 북상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예상 경로 및 주변 기압계 모식도

[태풍 현황]

□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¹⁾'는 지난 8월 2일(금) 09시경, 괌 북동쪽 약 1,120km 해상에서 발생하여, 5일(월) 09시 현재 일본 오사카 남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6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1)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남자 이름임.

[태풍과 날씨 전망]

- (태풍 강도) 이 태풍은 현재 강도는 중(최대풍속 시속 97km (초속 27m)), 크기는 소형(강풍반경 약 220km)으로 오늘(5일) 밤까지 현재의 강도를 유지하겠고, 6일(화) 밤~7일(수) 새벽 남해안에 상륙한 후 수증기 공급 약화, 지면 마찰 등에 의해 강도가 약해지겠습니다.
- 앞으로 태풍은 5일 밤~6일 새벽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1차적으로 약화되었고, 6일 밤에는 해수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해상을 지나 남해안(여수~통영 부근)에 상륙하면서 약화되었습니다.
- (태풍 경로) 앞으로 태풍은 우리나라를 향해 점차 북동진하여 6일 오후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6일 밤~7일 새벽에 남해안(여수~통영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7일(수) 오전에 충청도, 오후에 강원영동으로 이동하여, 밤에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 (강수)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광주와 전라남도는 6~7일에 순차적(남해안→내륙)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 6일 늦은 오후(15시 이후)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밤(18시 이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후, 태풍이 강원도를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함에 따라 7일 아침(06~09시)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18시 이후)에는 대부분 지방의 비가 그치겠습니다.

※ 예상 강수량(6~7일)

- 광주, 전라남도(서해안 제외): 10~60mm
- 전남서해안: 5~20mm

[태풍 특징 및 유의사항]

- 태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해 6일 밤~7일 오전에는 태풍의 이동경로에 가까운 동부내륙 및 동부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 (강수 집중) 특히 수증기가 높은 지대를 따라 상승하여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지리산, 백운산의 동부내륙지역과 전남동부남해안에서는 시간당 20mm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계곡과 하천 등에서는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한 바람) 6~7일에 태풍이 남해안으로 북상함에 따라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전남동부남해안에서는 시속 35~58km(초속 10~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등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높은 파도)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6일 오전에 남해서부먼바다부터 물결이 점차 높아져(3m 이상) 6~7일에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6m 이상 높게 일겠고, 만조시간까지 겹치면서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 범람 및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태풍 변동성]

-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 후,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동속도가 다소 느려질 경우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져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 전망]

- 8월 4일(일) 15시 경,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1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레끼마(LEKIMA)²⁾’는 5일 09시 현재, 소형급 태풍으로(최대풍속 시속 86km(초속 24m), 강풍반경 약 220km)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86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4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태풍 레끼마는 고수온 해역(29도 이상)을 지나면서 점차 발달하겠고, 9일(금)에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①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②우리나라 주변 바람 방향에 따라 태풍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제9호 태풍 레끼마(LEKIMA)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과일나무의 하나임.